

News

정 총리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조치, 추가 연장 불가피"

뉴시스

오는 3월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이자상환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소용들이 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김정태·조용병·손태승 향후 행보는?

SBS Biz

하나금융지주,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재판 및 이진국 부회장의 수사로 인해 김정태 회장 연임 가능성 높아
신한금융 또한 조용병 회장 또한 진옥동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연임 가능성 높아

"고령층 많으면 점포 유지 검토" 은행 점포 폐쇄 더 간간해진다

한겨레

은행 점포를 없앴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더 꼼꼼히 따진다. 고령층, 지역의 은행 접근성 급감 방지 위한 것.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권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은행 배당규제' ... 野"동학개미 뭉치 최소 887억 감소"

매일경제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권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 올해 소액주주들이 배당금이 최소 887억원 가량 줄어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배당을 한 경우와 금융위 권고안(20%)을 따른 경우 배당액 차이는 4대 금융지주에서만 6134억원에 달해

현대해상, 이달 GA 설립 신고... 대표에 김재용 상무 유력

뉴스웨이

현대해상은 이르면 이달 금융당국에 GA 설립을 신고하고 3~4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판매채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 현장 중심의 업무 지원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금융위, 보험업계 1사 다면허 방식 상반기 도입

조선비즈

금융위원회가 1개 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업면허(라이선스)를 각각 1개씩만 갖도록 한 규제를 올 상반기 완화
일본식으로 1개 회사가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사업 방식이나 주력 상품을 다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진출 '한 발 앞으로'

서울경제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평위 심사를 통과한 미래에셋대우는 현장실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발행어음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차보험료 또 오르나... 정비업계, 요금 8.2% 인상 건의

서울경제

자동차 정비업계가 10%에 가까운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을 건의해 주목된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비수가 협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돌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